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5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8. 복의 근원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5월의 하늘 아래 세상 도처에 초록빛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무겁습니다. 새싹이 움텄는지 보려고 철조망 사이를 망연히 바라보는 대추리 8순 노인의 눈빛이 무겁고, 자기 땅에서 쫓겨난 이들의 한숨소리가 무겁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의 표정 없는 얼굴이 안쓰럽습니다. 생명의 신비 앞에 멈추어 설 줄 모르는 돌 가슴들이 활보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발길도 머물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대하든 지극 정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평화의 씨를 파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3:5 ..... 인도자

♠ 교 독 문 ..... 72. 어버이 주일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장성호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315. 돌아와 돌아와 ..... 다함께

성경봉독 ..... I. 요8:30-43 ..... 인도자

..... II. 말4:4-6 ..... 김훈동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배움 비움 ..... 김재흥 목사

..... II. 아름다운 인연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42.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편협함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좁아진 마음을 넓히십시오. 떨림과 기쁨으로 마음을 여미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일이 험경터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일들 속에 숨겨두신 값진 보화를 찾아내며 살겠습니다. 기쁨을 만드는 진실한 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굳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10)/김재흥 목사	에베소서 강해(36)/김기석 목사
기도 : 이형숙 집사	기도 : 이건화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오선영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권미정 집사

5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정길	오진훈	최숙화	박효선	문인옥
	헌금위원	윤석철	이호원	김훈동	구명자	이순정	강순배

## 거친 설교

이 종파적 업무들이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내가 만일 의사라면 사람들은 나의 의료 기술과 내가 얻은 명성을 보고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인 나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어제 내가 만난 교수는 내가 속한 교파를 물었다. 내 대답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 나름대로 나의 존재를 분류하고는, 오만하게도 마치 내 정신이—특수한 환경에 의해 그 삶이 결정되는 아프리카의 호텐토트 사람과 마찬가지로—나의 교파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만일 내가 좀 더 큰 교파에 속해 있었다라면 이 문제가 그렇게 나를 따분하게 만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속한 교파가 소수 종파라는 사실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만일 더 큰 교파에 속해 있었다라면 나는 좀 으쓱했을 것이고 스스로 영광스러워 했을 것이다. 내가 고백으로서의 종교에 투신한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나의 활동을 위해 초교파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출구를? 총무들과 Y.M.C.A. 실무자들은 너무 모호하다. 그들은 대개 이런 저런 사무용 기계 앞에 앉아 있을 뿐 아이디어를 내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운전사는 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목사라는 게 단지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뜻인가? 누가 알랴?

그러나 너무 냉소적이지도 말고 병적일 정도로 내향적이 되지도 말자. 조만간 회중들에게 들려주어도 좋을 만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것이고, 그로써 단순한 말쟁이의 운명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설교가가 되려는 열망을 품지는 말자고 스스로 다짐한다. 나는 웅변가로 전락할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거친 설교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좋은 시들을 인용하는 것도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아름다움과 의미, 그 두 가지를 다 잃고 있으니 말이다. (1916)

## 젊은 청중들

내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젊은이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나는 내가 그들의 삶의 자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 어쩌면 내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거의 매번 한눈 파는 녀석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을 끊어야 한다. 내가 그런 반을 맡았다는 사실이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내 설교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침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많지 않은 숫자의 성인 회중들은 이 정직한 젊은이들보다 참을성이 많고 공손하기까지 하다. 그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발견하기란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1916)

## 무지의 덕(?)

나는 오늘 L교수로부터 대학으로 돌아와 교수가 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편지를 받았다. 불과 일년 전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탐구하는 삶은 묘한 매력이 있다. 그것은 목회보다는 단순하다. 가르치는 사람의 유일한 과제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진리 말고도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옛 전통에 내포되어 있는 미덕들을 자신의 성상과괴운동(편견)을 통해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교 전통 전체를 사려 깊게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참 만만찮은 과제이고 성가신 일이기도 하다. 아무도 교육학적인 신중함이 끝나는 때가 어디고, 부정직함이 시작되는 때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없으니 말이다.

목회 초년병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그의 훌륭한 옛 동료들 역시 그러한 무지의 덕(?)을 범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제2이사야도 몰랐고 신명기가 후대에 재해석된 율법을 드러내고 있음도 몰랐다. 최근의 신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새 지식(신학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을 갖지 못했다고 하여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목회는 무지의 덕을 드러내도 괜찮은 유일의 직업인 것 같다. 만약 누군가가 20년 동안 주석 이외에 아무 것도 읽지 않는다면 그는 거룩함과 경건함의 아우라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직업은 그 나름의 전통과 전통주의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서는 전통주의자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주께서 자기들 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확신한다. (1916) (라인홀드 니버)

## 아버지의 등

밤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업었다 인적 없는 길로 하여 간호원의 집에서 주사를 맞히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우릴 보며 웃었다

금방 하늘에라도 오를 것 같던 어머니가 그의 등 위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웃었다

숨었던 꽃이 하얗게 덩굴 위로 피어나고 열었던 못물이 풀려 달빛에 반짝일 무렵 술밭에서 바람은 불어와 살아 있는 나를 실어 온다며, 그는 웃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한다/야곱의 이야기다/환도뼈가 쪼개져도 놓을 수 없는/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다다리에 매달려 있는/새벽이 되자 나무로 자라 있는 그 등이 나뭇결처럼 단단해진/바위처럼 살아 있고/노래처럼 흐르는

그 짧은, 눈부신 발길을/빛 하나도 없이 나는 왜 달리는가/들쳐업고 달리다보면/나의 등은/문득 거친 벼랑인 것을/거기에 날개 단 풀꽃 하나가/바람에 지쳐 우는데,/아무도 알 수 없다네/나의 등과 당신의 가슴이 만나/수평선, 그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별이 쏟아져내릴수록/싸움은 나의 일이 되고,/오늘도 당신을 들래들래 업고서/다리를 건너네/저만치 하얀 꽃들이 눈부신 들을/빛 하나도 없이/바람 한점 없이/다리를 건너네

— 나희덕 —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권혁순 박해경 김창원 정지은 이한림 김명희 김중수 이순정 박애순  
 백요현 백승민 유명숙 최종원 김용길 최영혜 윤수진 윤미경 서원금  
 김희진 박홍재 이인웅 김순복 전영웅 임원민 임수연 김애경 박성수  
 정복순 김재흥 최희영 양재성 임미심 이에정 윤석철 장혜숙

### 월정헌금:

이지훈 김명순 유증희 이재문 이동천 황경순 최윤희 정두리 왕수명  
 황원순 이소순 황자순 김정섭 문인옥 김영한 이희균 전영규 김경수  
 송의섭 배부례 조순덕 김승현 김수진 이호원 이증자 김창경 박범희  
 박미영

### 감사헌금:

이은옥 김기석 송동준 김진경 김진 백승민 이응구 한선희 유형  
 문복순 이해동 맹은선 문금석 김순복 이소순 최미선 한상익 정영선  
 이동천 윤정화 이인웅 장영숙 이인섭 윤정덕 구성실 이증자 무명2

##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박영희	유영남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복순	이건화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김진경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필순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숙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교회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최종원	안길상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박옥식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박미영	이증자
다메섹	박해경	최영혜	임창선	조항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어버이주일** :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청년회** :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청년부 모임은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철 장로님의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아름다운 원로** :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경북 안동 지역을 다녀오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 **심방** : 가정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16) - 엠마오속1, 수(17) - 엠마오속2
6. **환경선교대회** : 제1회 감리교 환경선교대회가 <다시 창조되는 세상, 새날 여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5월 20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대문에 있는 석교교회에서 열립니다. 환경부원들은 물론이고 선교회장들도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그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 헌화 : 백혜숙 권사 (결혼 기념일)

<새교우 소개>

2617 조영춘 소속: 1여선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